

‘신의 주식’ 목표주가 다시 높아라 ‘실적 전망 재산정’ 바빠진 애널리스트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58% 증가
화웨이 제재, 원가절감 등 주요

연말 기점 D램 업황 개선 주목
내년 반도체·OLED 수익성 개선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크게 넘어선 경영실적을 내놓으며 추후 주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D램의 업황 개선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낮은 공급 증가율과 기저 효과에 따라 반도체 업황 부진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 전분기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잠정 영업이익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1% 늘어났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50.92%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애플의 신규 아이폰 출하 연기, 전 부문에 걸친 원가 절감 노력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깜짝실적 발표와 함께 증권사 기업 분석보고서(리포트)도 쏟아지는 중이다. 목표주가는 최소 7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선이다. 현주가(5만9700원)보다 최대 34%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

<주요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대신증권	8만
SK증권	8만
신영증권	8만
NH투자증권	7만6000원
메리츠증권	7만6000원
유진투자증권	7만6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7만5000원
현대차증권	7만4000원
유안타증권	7만2000원
DB금융투자	7만2000원
하이투자증권	7만1000원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2일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200만대를 상회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미래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주목했다. 노 센터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붙으며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난다면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OLED 출하량은 올해보다 26.3% 증가한 5억 1000대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수익성도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높은 이익 방어력을 바탕으로 실적개선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매수를 권한다”고 추천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메모리 업황 개선 본격화에 따른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37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3분기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수준의 실적을 거뒀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장담할 수 없다. 4분기 실적시즌에 맞춰 주가 등락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요 거래처인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이어진다면 ‘큰손’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달 중 애플의 첫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가 출시되는 것도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7% 감소한 10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 디스플레이(DP) 부문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IT·모바일(IM)과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LH, 드론으로 스마트 현장 관리 추진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실현을 위해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 왔으며,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드론촬영 영상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가능한 ‘웍스 기반 드론웍스 플랫폼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관리의 시간적·공간적·인적 제약을 해소하고 스마트 건설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드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해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서울 용산구 한남 더 힐.

/연합뉴스

올해 가장 비싼 아파트 ‘한남 더 힐’ 77억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 지속

부동산 시장에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000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이 단지 종전 최고가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전용 240.35㎡와 240.23㎡에서 나온 73억원이었다.

/정연우 기자

한남더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 기록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며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종 이상 게임신작 대기... 드론사업 고성장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게임SW 개발사 | 한빛소프트 |

게임, 드론, VR·AR 사업 투자
삼국지난무 사전예약 40만여명
전세계 드론 1위 중 DJI 파트너사
올 영업이익 28억 흑자전환 기대



컨텐츠 사업 매출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 어플(App)인 ‘홈데이’와 ‘텐데이’, 그리고 드론·VR·AR 부문에서 발생한다.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2일 “올 4분기 ‘삼국지난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최소 3종 이상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 ‘한빛소프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의 배급사로 유명한 게임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사다. 직접 제작한 게임으로는 ▲에이카 ▲도시어부 M 등이 있다. 게임 외에도 드론 가상·증강현실(VR·AR)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게임 사업 66%, 콘텐츠 사업 34%다. 게임 사업 매출은 PC와 모바일 게임 배급에서 발생하고,

올해 한빛소프트는 일본 게임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와 공동 개발한 ‘삼국지난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 연구원은 “9월 10일부터 진행된 사전예약 이벤트에 40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저와의 경쟁도 가능한 ‘삼국지난무’는 올 4분기부터 한빛소프트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회사인 한빛드론(지분율 53.7%)의 고성장도 기대 요인이다. 한빛드론은 전 세계 드론 시장 1위(시장 점유율 76.8%) 기업인 중국 DJI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다.

최 연구원은 “최대 비행시간 40분이 가능한 산업용 드론 ‘시그너스(사진)’는 현재 인천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2개의 사업에 참여해 공기질 무인 분석

을 위한 정보 수집·해안가인접 지역과 공원 현장 영상 촬영 역할을 수행 중이다”면서 “‘시그너스’가 촬영한 영상은 SK텔레콤의 실시간 영상관제 시스템인 ‘T라이브캐스터’를 통해 수요처로 전송된다”고 했다.

한빛드론의 매출액은 2017년 30억원에서 2019년 120억원으로 연평균 200% 이상 성장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목표 매출액은 180억원으로 정부지원과 시장성장에 힘입어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VR·AR 사업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7월 서울을 리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가상현실스포츠교실통합플랫폼서비스’ 정부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올 9월 충청북도 증평군청과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한빛소프트의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매출 역시 24.8% 늘어난 5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KB증권, 美 성장주에 투자하는 랩 출시

KB증권이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투자전략 및 미국주식 종목선정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KB able 미국대표성장주랩’을 출시했다.

KB able 미국대표성장주랩은 꾸준한 이익 성장을 이어가는 미국시장 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일정 부분 방어주를 편입시켜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비한 서비스다. 거기에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일부 편입해 초과 수익률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익 성장과 주주환원을 통해 자

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디지털 사업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거나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한 기업 등을 선별하여 리서치센터의 고유 밸류에이션 모델 툴을 바탕으로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또 KB증권 리서치센터는 ‘리스크-리턴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쟁 기업 비교를 통해 추가 매력도가 높은지 판단하며, 부채 상황 및 재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꼼꼼히 체크해 관리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